

참고 II-1.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방향 수립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금융안정은 물론 장기 성장기조와 물가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행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2021년 4월 금융안정국 담당 부총재보가 주관하고 금융안정국 등 행내 10개 부서가 참여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유관부서간 협력 TF」를 구성하여 전행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를 집약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10월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⁸⁴⁾」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경제주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 인식 제고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를 대응방향의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전략으로는 조사·연구, 정책수단, 조직 및 내부 경영,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조사·연구 부문에서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통화정책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본격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정보 수집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통계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책수단 부문에서는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대출

및 지급결제제도, 공개시장운영 등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담보 증권 대상범위에 녹색채권⁸⁵⁾을 추가하는 방안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외화자산 운용에서도 현재 외화자산 중 일부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ESG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조사연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 및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하는 한편, 기후변화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축적, 인력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은행에 적용할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실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도 국제협의체에 대한 참여 확대를 통해 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및 정책 대응방안을 대외에 공개하여 경제주체들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나가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표 II - 9. 한국은행의 기후변화 대응방향

미션	금융안정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 지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주체의 기후변화 리스크 인식 제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 강화 	
대응 전략	기후변화 조사·연구 •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강화 • 공동연구, 세미나 확대 • 기후관련 통계 확충	녹색금융 활성화 • 대출제도 • 지급결제제도 • 공개시장운영 • 외화자산운용
	조직 및 내부 경영 •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 신설 • 자체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수행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의체 참여 • 홈페이지에 기후변화 색션 신설

자료: 한국은행

84) 보고서

85) 발행자금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관리 등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을 말한다.

참고 II-2.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한국은행에 납품된 제조 은행권(신권)이 한국은행 공식 창구를 통해 시중에 발행된 이후 더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한국은행 창구로 환수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을 의미한다. 은행권 유통수명의 결정요인으로 화폐 소재의 내구성, 경제주체들의 화폐 사용습관 그리고 화폐의 사용빈도 등이 있다. 은행권 용지의 물리적 강도가 강해질수록, 은행권 사용습관이 개선될수록, 거래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아질수록 유통수명이 길어진다.

그림 II-17. 은행권 유통수명

신권 납품	신권 발행	손상권 환수	손상권 폐기
	유통수명		손상권 보관

자료: 한국은행

표본조사 방식⁸⁶⁾으로 권종별 유통수명을 추정한 결과 천원권 61개월, 오천원권 63개월, 만원권 131개월, 오만원권 178개월로 나타났다. 저액권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거스름돈 지급 등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에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고액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수명이 짧게 나타났다. 특히 오만원권은 다른 권종에 비해 거래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고 가치저장 용도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유통수명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2019년 이후의 유통수명 추정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모든 권종에 대해 유통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통수명 증가 추세는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사용 확대,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II-12. 2019년 이후의 유통수명 추정결과 비교

(개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천원권	53	60	61
오천원권	49	60	63
만원권	127	130	131
오만원권	162	174	178

자료: 한국은행

한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은행권의 유통수명은 최저액면(천원권) 및 중간액면(만원권)은 길고 최고액면(오만원권)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만원권이 주요국의 최고액면권에 비해 구매력이 낮아 실제 거래에도 상대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18. 주요국 은행권의 유통수명 비교¹⁾

(개월)

최저액면		고액면	
국가(액면가)	유통수명	국가(액면가)	유통수명
미국 (1달러)	79	미국 (100달러)	275
유로존 (5유로)	19	유로존 (200유로)	142
영국 (5파운드)	23	영국 (50파운드)	492
일본 (1천엔)	18	일본 (1만엔)	54
호주 (5달러)	68	호주 (100달러)	330
멕시코 (20페소)	50	멕시코 (1000페소)	110
한국 (천원)	61	한국 (오만원)	178

주: 1) 중간액면의 유통수명(개월): 미국(20달러) 94, 유로존(50유로) 50, 영국(20파운드) 113, 호주(20달러) 134, 일본(5천엔) 18, 멕시코(200페소) 51, 한국(만원) 131

자료: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

86) 은행권 표본을 추출한 후 기번호를 통해 납품시기를 추적하여 유통수명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참고 II-3.

한국은행의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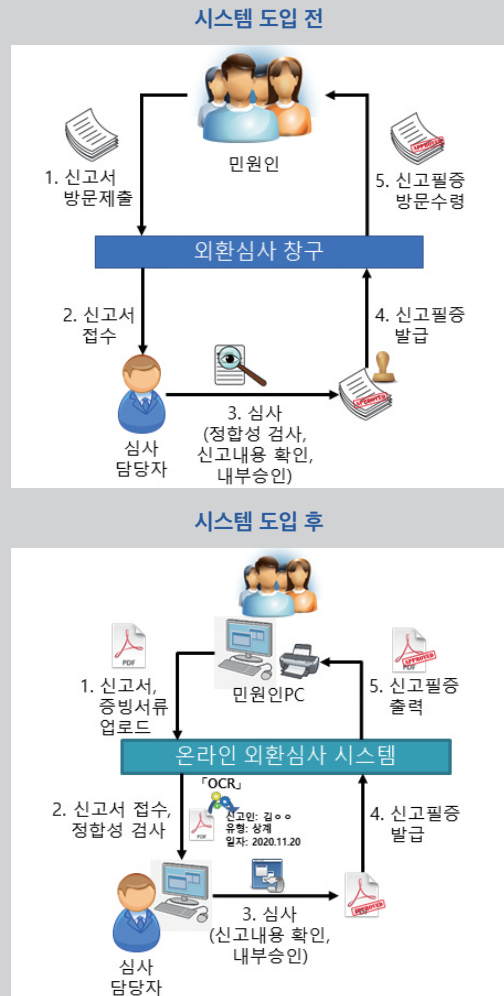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 BOK 2030의 목표 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의 경우 당행이 신고서 접수, 심사, 신고필증 교부 등 일련의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신고서류간의 정합성 분석, 심사 진행상황 안내, 외환전산망 데이터 입력 등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 자동화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동 시스템의 도입·운영으로 한국은행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외환심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원인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동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민원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계, 제3자지급,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외환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외환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환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II - 21.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외환심사 업무 변화



참고 II-4.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 활성화

한국은행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빠르게 늘어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한국은행 업무내용과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등을 다양한 영상 및 비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한국은행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은행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주요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캘리그래피 등 시각화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부서별 업무를 실제 업무현장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N시 한은」, 경제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경제지식을 설명하는 「BOKFLIX」, 경제용어를 소개하는 「퇴근길 경제 한 단어」를 비롯해 「복고한은」, 「한은과 떠나는 랜선 국내여행」 등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콘텐츠들도 제작하였다.

한편 한국은행 업무와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기적으로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전망, 통화신용정책 등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 내용을 소개하는 「BOK 정책브리핑」, 최근 경제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복고노미」, 시의성 있는 경제용어를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BOK클래스」 등의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특히 한국은행 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집한 한국은행 및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한 「한국은행이 궁금해?」 시리즈는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림 II-32. 유튜브 「한국은행이 궁금해?」



자료: 한국은행(https://youtu.be/A_sQqUBbkNM)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말 기준 5.2만 명이었던 한국은행의 유튜브 및 SNS 채널의 총 구독자 수는 2021년 말 현재 9만 명을 넘어서었다. 그중 유튜브(2020년 말 2.5만 명 → 2021년 말 4.2만 명)와 페이스북(1.5만 명 → 3만 명) 채널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으며, 2021년 3월에 개설한 인스타그램 채널의 구독자 수도 2021년 말에는 5,506명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31. 인스타그램 「N시 한은」



자료: 한국은행(<https://www.instagram.com/p/CMjKklElzPU>)